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제32권 30호(나해) 2012.6.24

[묵상]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그의 이름은 요한.”

주님이 알려주신 이름
주님의 목소리를 낼 그 때까지
침묵해야했던 고통의 시간
주님을 비웃었던 즈카르야
오랜 침묵의 시간을 통한 깨우침
인간의 삶은 주님을 향한 것,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요한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에라도 합당하지 않다.
그분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킬
그분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즈카르야의 깨달음, 요한의 삶
저희의 진정한 어리석음은
주님을 깔보며 그분을 비난하는 것
저희의 가장 큰 행복은
저희의 겸손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 할 수 있음임을
저희의 깨달음과 삶이 되길.....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김남호 율리아노 & 최운정 레니자 가정, 문 밍티스타 수녀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오진 베드로, 박영준 안토니오, 이현호 요한, 이태숙 카타리나, 이상일 요셉, 고준희 제임스, 김영자, 이준택, 이원길 요한 & 성순분 수산나, 천서인 레지나 (생)이재정 사도요한, 유재형 요셉, 임종택 베르나르도 & 임수연 에메리파, 신대철 알베르토, 배진욱 빌립보, 신대진 베드로, 남가주여성꾸르실료(영어)참가자 남혜원 스텔라, 문밍티스타 수녀, 이상을 바실리오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9,1-6

화답송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앞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 속속들이 당신은 아시나이다.○

제 2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13,22-2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복 음 루카(St. Luke) 1,57-66.80

영성제송 우리 하느님이 크신 자비 베푸시니,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6	200	192
봉헌	261	261	255
성체	291	291	200
파견	313	313	238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구약과 신약의 관계

41). 이러한 고찰들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지
니는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론적
해석의 독창성을 드러냅니다. 사도들의 시대부터, 그리고 살아
있는 전승 안에서, 교회는 예형론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 사이
에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예형론은 자의
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사건들에 내재된
것이며 성경 전체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형론은 “때가 왔을
때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예형
을 구약의 하느님의 업적에서 식별해 냅니다.” 그러므로 그리
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비추어 구약 성
경을 읽습니다. 예형론적 해석이 신약과의 관계에서 구약 성
경의 다함 없는 내용들을 드러낸다면,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
경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확증하신 것과 같이 계시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마르
12,29-31 참조). 따라서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 교육은 끊임없이 구
약 성경을 활용하였습니다(1코린 5,6-8; 1코린10,1-11 참
조).” 이 때문에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교부들은 “유대교의
성경 이해는 그리스도인들 편에서의 성경 이해와 연구에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주제에 대하여 치밀하고 지혜롭게 말
한 바와 같이,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대 그레고리오 성인과 함께
“구약은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 약속을 보게 했습
니다. 구약이 감추어진 방식으로 예고하는 것을, 신약은 온전
히 현존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언
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최고의 주해는 신약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목적인 영역에서나 학문적인 영역에서나 구
약과 신약의 긴밀한 관계를 잘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어두운”면들

42).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는, 성경에 때로는 폭력과 부도덕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둡고
어렵게 느껴지는 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의 계시는 근본적
으로 역사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계획
은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인간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연속적인
단계들을 거쳐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계속>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며, 백성으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맞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백성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온갖 불의와 죄악을 향해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 외침은 세상의 권력자이건 가진 자건,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외치는 이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친구자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실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숨결을 지니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살아 계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안에 간혀 있지않고 이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

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사랑과 섬김의 실천 속에 하느님은 살아계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천 속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면 감히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이하시하고자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겸손과 순명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 하느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과 순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 스스로 '더 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천과 요한의 모범을 통해 '더 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권동성 본시아노 신부 / 부산교구 김해성당 주임

영원한 내편, 당신

편애가 나쁘다고 흉을 보지만
사실 그 편애, 내것이라도 그럴까.
수많은 것 중에서 편애보다
은밀하고 달콤한 걸 난 알지 못하네.
저지른 잘못 따지지 않고 전부를 주며
지은죄 묻지 않고 목숨마저 내어주니
이보다 더 지독한 편애가 또 있을까.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남의 편애만
부러워 시샘하곤 했구나.

◆글 :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수진 보나	신덕레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에밀 카폰 신부(Fr. Emil Kapaun) 시복시성 진행중

6월
예수
성심성월

미국 위치타 교구(캔사스주)는 1950년 한국 전쟁에 군종신부로 사목하다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선종하신 에밀 카폰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자료를 로마 교황청에 제출,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카폰 신부님의 성인추대를 위한 시복시성 기도문이 본당 사무실에 와있으니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시기를 위치타 교구는 바라고 있습니다.

◆ 앵커리지 한인성당 성전전립 기금모금을 위한 특강

- 일시 : 6월23, 24일 특전미사와 주일미사
- 강론 : 안광성 신부(청주교구 소속)
- 교우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1~2012년 회기 마지막 사목회

- 일시 : 6월24일 오후 1시, 강당
- 회의 끝난 후 양업회 vs 대전회 족구대회
- 장소 : 천교장과 축구장

◆ 이상을 바실리오 신부님 26일 귀국...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간 본당에 오셔서 미사와 강론을 통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이상을 바실리오(군종교구)신부님께서 미국연수를 마치고 26일(화)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이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 본당 수녀님 북미주 한인수도자 피정 참가

- 일정 : 6월25일(월)~7월11일(수)
- 장소 : 뉴욕 예수회 피정센터
- 오늘 성 요한세례자 대축일에 영명일을 맞으시는 문 밤티스타 수녀님께 축하드리며, 이번 피정이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신영세자 첫 고해성사

- 일시 : 6월27일(수) 오후 7시30분 미사후
- 대상 : 성령강림대축일(5월27일)에 세례를 받은 분들

◆ 제34차 남가주 여성(영어)꾸르실료

- 일시 : 6월28일(목)~7월1일(주일) 3박4일
- 장소 : 포모나 피정센터
- 본당 참가자 : 남해원 스텔라
- 영적 빨랑카 부탁드립니다.(사무실 비치)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재미있는 영성생활' 신앙특강

- 일시 : 7월3일(화)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전
- 강사 : 곽용승 요셉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 영성신학박사)

◆ 2012년 제25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세을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한상만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 어린이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목요일 미사(오후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남녀 어린이
- 문의 : 황선흥 그레고리오 ☎(424)903-6637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에 광고후원금을 보내오고 계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우들께서는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가능한한 애용하여 주십시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24일(주일) : P.V. 1반(비빔밥+미역국 \$3)
- 7월1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지남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김병학 김양금 김윤진 김재영 김재희 김정웅 김충섭 노혜숙 신순철 안민수 안태갑 양영관 오영섭 원건희 유선식 유철희 육근주 윤석구 이귀란 이근태 이용식 이재승 이현주 전동훈 정혜영 조인순 채미정 최길주 최수현 최원석 최의수 최현찬 하정화 한금순 홍선자 황인중 한길선례 박제이콧
	합계 : \$3,820
미사헌금 : \$2,644	

성전헌금	김병학 김양금 김윤진 김재희 김충섭 노혜숙 신순철 안민수 안태갑 오영섭 원건희 유선식 유철희 이귀란 이근태 이용식 이일길 이현주 전동훈 정혜영 조인순 채미정 최길주 최원석 최의수 최현찬 하정화 한금순 황인중 한길선례 박제이콧
	합계 : \$2,660
한남제인도네이션 : \$330	
감사헌금 : 박이레네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서머캠프 일정

- 일시 : 6월29일(금)~7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
- 집합장소 : 금요일 오후 2시 성당 주차장(시간 꼭 지키세요.)
- 준비물 : 슬리퍼, 세면도구, 재킷, 수영복, 선댄로션, 타올, 미사헌금, 목주...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 2차접수부터 등록금이 인상되니 서둘러 주시기바랍니다.
- 1차접수 :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8월5일부터(\$140, \$120, \$100, 무료)
- 자모회비 : \$40(가정당)

한국학교 소식

- 2012/13학년도 한국학교 등록 : 학생미사·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 여름방학 SAT 한국어 특별반 모집
 - * ① SAT 기초 준비반 ② SAT 집중문제 풀이반
 - * 수업시작 : 7월1일(주일)부터 학생미사후 8주간 계속
 - * 등록금 : 새학기 등록자 무료
- 한국학교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 문의 : 김해경 스텔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제3학기 과정

- 일시 : 7월13일(금)~15일(주일) 오후 6시50분~10시
- 주제 :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 수강료 : \$50(1일 \$20)
- 등록문의 및 접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최대재 신부(성아그네스성당 주임)의 커피 강의

- 일시 : 7월9일(월) 낮1시, 7월12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수강료 : \$50(각반 15명 씩)
- 신청 :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 ☎(323)731-4433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6/8(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8~9 박배여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서영주 시몬 357-7829 6/15(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요셉 543-4953 6/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6/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현석주 아오스딩 594-9472 6/16(토)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6/14(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6/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엘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화) 오후 8시 반미사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유영준 우르바노 985-2882 6/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훈모 바오로 377-6328 6/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544-4807 6/2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213-369-0687 6/8(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골롬바 818-6930 6/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 모임

사목회(2012년회기 마지막)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용기있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다.

서울주보의 '말씀의 이삭'은 신자들이 가장 열독하는 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의 반응을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의 이삭'에 문화예술인들의 글을 실는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글을 읽은 우리 신자들은 그분들이 나누어 주는 신앙체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김태희 베르다 자매의 글이 실리면서 그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일간지에도 글의 내용이 소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베르다 자매는 주보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때로는 남들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는 우월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혼자서만 조용히 하느님 사랑을 맛보고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잊고 살았다는 것과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죄책감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나도 겸손(?)하여,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이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일에는 조금 무뎡니다. 나는 우리 시대 최고의 배우가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그저 눈물 나도록 고맙고 대견합니다. 그녀의 외침은 큰 메아리가 되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그녀가 각박한 이 세상에 사랑과 희망, 위로를 주는 진정한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즈카르야는 천사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하느님께 특별한 소명을받습니다. 그는 구세주 주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자는 평생 주님의 구원도구로써 충실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암흑기에 그의 외침은 항상 힘 있고 분명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결국 그는 정의를 외치다 왕에게 미움을 사서 죽게 됩니다. 요한 세례자는 명예를 탐하거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

습니다. 그는 오직하느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나 명예를 누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요한 세례자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 희망해봅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을 외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혈통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